

연중 제17주일

제1독서: 2열왕 4,42-44

제2독서: 에베 4,1-6

복 음: 요한 6,1-15

순정이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러 주셨으니 그 불러 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에베 4,1b)

강론

소리

의문?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상섭 신부/삼삼례 천주교회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왜 하필이면 한 어린이만 빵과 물고기를 내어 놓았을까? 한 어린이만 빵과 물고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인가? 그 시간에 어른들은 한 사람도 빵과 물고기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갖고 있으면서도 손해를 보기 싫고 뺏기지 않으려고 모른 채 하고 내어 놓지 않았다는 말인가? 참으로 어린이는 순진하고 어른들은 모두 영리해서 그렇다고 할까? 그렇다면 어린이는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바보이기에 내어 놓고, 어른들은 앞을 내다보는 지혜로운 사람이기에 미래를 위해 감추었다(저축했다)는 것일까? 사실 어른들은 조금이라도 더 많이 움켜쥐고 싶은 욕심 때문에 내어 놓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부자가 되는 모양이다. 그들은 부자이면서도 항상 자기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미래를 위해 더 모아야 하고, 더 모아야 하기에 이웃에게 쉽게 내어 놓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는 것일까?

가진 자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가난한 자(부족한 자)가 되어 항상 부족한 사람으로 살기에 이웃에게 내어 놓을 여유가 없는 것일까? 이런 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은 어떻게 될까? 이런 이기주의적이고 영리한 어른들만 사는 세상에서는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오직 자기 자신만의 부족을 메꾸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내어 놓지 못하는 가진 자(부자)만이 산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가진 자 즉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 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 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마태. 19, 24)의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동물들은 자기 배가 부르면 더 욕심을 내지 않는다. 식인종은 자기 종족을 잡아먹지 않고, 또한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잡아 두지 않는다.

사냥지도, 잔인하지도 않은것 처럼 보이는 우리는 굶주린 배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왜 굶어 모으려고만 한없는 욕심을 내는 것일까?

어찌 보면 우리는 굶어 모으려고 하기에, 동물이나 식인종보다도 더 사납고, 잔인하게 살아가고 있지나 않는지?

내어 놓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는 나의 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야 뻔하지...

거긴 성진디라

몹시 무더운 날, 치명자산으로 성지순례를 왔던 분들이 치명자산 옆에 있는 사찰 앞뜰 그늘에서 점심을 들고 있었다. 이때 스님이 왜 치명자산에서 점심을 드시지 여기서 잡수시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대답은 “거긴 성진디라” 하더랍니다.

불교신자들이 아니니까 웃어넘겨 버릴 수 있었겠지만 스님으로서의 매우 불쾌했으리라 짐작이 간다.

거룩한 분들의 숭고한 삶을 되돌아 보면서 그 시대의 신심을 이해하고 체득하며 또한 순교자들의 죽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 주는지 그 의미를 하느님 앞에 다짐하는 성지, 그래서 순례객들은 성지에서의 점심식사마저도 사양했을 게다.

그런데 문제는 치명자산 성지를 가까이 접하고 있는 우리가 그곳에 모셔진 분들의 업적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호남의 첫사도요, 최초로 이 고장에 복음을 전한 유헤점 가족과 유증철 요한·이순이 루갈다 동정부부의 유해가 안장된 곳이라는 정도만 알고 있을 뿐이다.

유헤점 아우구스티노의 생애와 천주교를 위한 막대한 재정적 뒷받침, 그리고 합법적이 아닌 사제의 직무와 권한을 중단시킨 업적 등은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또한 동정부부의 삶을 소설 속의 얘기로 둔갑시켜 받아들이는 그들이 4년을 동거하면서 동정서약을 파기할 위기를 여러번 넘기기까지 하느님께 매달린 과정은 음미치 않는다.

성당축성과 함께 발간된 「초남리에서 치명자산까지」라는 책자는 이곳 성지의 유래는 물론 우리의 교회사를 가장 간편하게 읽을 수 있기에 이 여름 피서의 책으로 권한다. ☐

순정이 산책



성서교실 43

아버지 이사약을 돌보시던 두려운 분이 내 편이시다

(창세 31, 22~42)

위의 성서 본문은 야곱이 자신의 뒤를 쫓는 라반의 추적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한다는 내용이다. 장인의 집에서 20년 동안 불철주야 힘든 노동을 했던 장만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낱알이 지켜 보시고 마침내 공정한 판결을 내리시어 야곱의 재산과 지위를 확보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집을 떠난 야곱에게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길르앗 산악 지대로 발걸음을 옮겨 주셨다.

이 지역은 하란에서 무려 600km나 떨어진 거리이다. 뒤늦게 야곱이 도망친 것을 깨닫고 즉시 출동한 라반은 7일 만에 길르앗 산에서 야곱을 따라 잡았다. 그러나 야곱이 라반과 정면으로 맞닥뜨리기 전에 하나님은 완충 역할을 하시기 위해 꿈을 통하여 라반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은 라반에게 야곱에 대하여 좋다 나쁘다를 가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말의 뜻은 야곱이 하는 행동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다.

라반이 야곱을 질책하는 내용은 두 가지이다. 그 하나는 야곱이 자기 딸들을 데리고 자기를 속인 채 은밀히 도주한 점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네 집안의 수호신들을 훔친 점이다. 첫 번째 질책에 대해 야곱은 장인에게 자신의 출발을 알릴 경우 그의 딸들인 자신의 두 아내를 데려가지 못하도록 할까봐 몰래 빠져나왔다고 변명한다. 사실 집안의 모든 가솔과 소유물에 대하여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던 욱심쟁이 라반이었기에 야곱이 딸들과 외손자들과 상당한 재산의 일부를 가지고 자기 집안에서 떠나가는 걸 호락호락하게 허용할 리 만무하다.

라반의 첫 번째 꾸지람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유를 들어 자신의 행동을 변명했던 야곱은 “수호신들을 왜 훔쳐 냈느냐”는 라반의 두 번째 꾸지람에 대해서는 완강히 그 사실을 부인한다. 실제로 야곱은 장인 집의 미신적인 종교행위에 대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 중 누가 장인 집의 수호신들을 훔쳐 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고대 근동의 관습에 의하면 어떤 집의 수호신을 훔치는 행위는 그 집의 유산을 탈취하는 행위와 똑같이 취급되었다.

어떻든 야곱은 “우리들 가운데 장인댁의 수호신을 감추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죽이셔도 좋습니다”하고 자신 있게 말한다. 이에 라반은 야곱의 천막을 시작으로 레아의 천막, 두 여종의 천막 순으로 뒤져 나가다가 수호



라헬이 아버지에게서 훔친 수호신을 숨기고 있는 모습

신들을 훔친 장본인인 라헬의 천막에까지 왔다. 그러나 라헬은 재치있게 낙타 안장에 수호신들을 넣고 그 위에 올라 앉은 채로 아버지 라반에게 용서와 이해를 구한다. 말하자면 라헬은 생리중이라 아버지에게 인사하기 위해 일어서지도 가까이 다가가 포옹하지도 못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라헬의 말은 레위기의 법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레위기 15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 여인이 걸터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다.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에 닿은 사람은 옷을 빨아 입고 목욕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 규정은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이 불결하다는 고대인들의 비과학적인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다.

라헬의 재치로 상황이 역전되자 야곱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사람들과 라반의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장인을 몰아 세운다. 야곱이 장인의 집에서 고통스럽게 보냈던 20년의 세월은 자기 주인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이상적인 목자의 삶으로 엮여진 삶이었다. 한마디로 야곱은 자신의 권익을 포기했고 라반은 주인으로서 고용인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악의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라반의 부당한 착취와 소홀한 대접 속에서 보람없는 고생을 하고 있는 야곱을 버려 두시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꿈 속에서 라반에게 나타나시어 야곱에 대한 그의 부당한 행위들에 대하여 판결을 내리신 것이다. 야곱의 하나님은 라반의 수호신들과는 달리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사랑 미용실
 퍼머 전문점
 최 규 팔(스테파노)
 공 계 자(스테파니아)
 삼천동 효문국교 정문 앞
 쌍용아파트 앞
 ☎ 225-3224

전원미용실
 신부화장 전문
 특수퍼머, 커트
 고 정 순(에스텔)
 ☎ (0652)83-0753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 대어
최 윤경 (유리안나)
미용실·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속성 발모·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3가 7-1
 ☎ 841-2496, 855-8653

리틀 핸즈
 ·원목가구 주문 제작
 ·DIY 나무모아 전문점
 류 수(에밀리오)
 김 경 숙(아기 막달레나)
 효자1동 파출소 앞
 ☎ (0652)223-6422

잡간

8. 가정기도, 꿈 같은 일인가?

세계 가정의 해를 지내고 있는 지금, 현대 가정의 여러 위기를 자각하는 목소리와 함께 가정을 살리자는 노력이 여기저기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정이 성화되고 참으로 그리스도인 가정의 이상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핑핑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의 사회생활 속에서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기도 시간을 따로 갖는다는 것은 꿈 같은 얘기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시간이 없다기보다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가정 기도는 자녀들이 성장한 후 참으로 아름다운 추억으로 자리잡게 할 것입니다. 지난 날 우리 교우 가정에서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어린 자녀들을 앞에 꿰어앉히고 기도를 바쳤던 것입니다. 자녀들이야 부모님의 강요 때문에 졸면서 바친 기도였지만 그때의 추억은 오래오래 간직될 것입니다.

한집안 식구끼리도 하루 내내 얼굴을 마주하기가 힘든 오늘날, 아침 저녁으로 가족들이 함께 모인다는 것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가, 특히 가장이 앉아서 그러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만도 아닙니다.

술에 만취되어 집에 돌아와서는 다 토해 내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애기는 아빠가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재빨리 아빠의 머리맡에 옥실의 대야를 갖다 놓곤 했습니다. 제 엄마가 하는 것을 보았던 모양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하는 행동을 배우게 마련입니다. 가정 기도를 위한 노력은 아무래도 부모가 먼저 나서야 합니다.

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 제공

교구소식

- 1. 가톨릭 문우회 모임 : 7월30일(토) 오후3시 가톨릭센터 1층 회의실
- 2. 전주 선택 주말피정 : 8월12일~14일 천호 피정의 집, 회비-45,000원
접수-가톨릭센터 교육국 ☎ 85-0041
- 3. 남성 제48차 꾸르실료 : 7월28일~31일 천호 피정의 집
- 4. 로사리오회 성서세미나 : 7월30일~31일 인월 공소
- 5. 주부대학 : 7월30일(토) 오전10시 화산동 성당, 강사-황익근 교수(전북의대 교수)
- ※ 축! 영명 : 25일(성 야고보) 김광태 신부님
31일(성 이냐시오) 성태수, 안철문 신부님

- **성소모임** 가르멜남자수도회 피정 : 7월30일~8월1일 인천 가르멜수도원 (032)542-2625
예수그리스도의 고난회 피정 : 7월30일~31일 광주 수도원 (062)571-5004
성바로말 수도회 : 8월 모임은 쉽니다.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가정에서의 환경보호(3)

가정에서 무심코 흘려 보낸 음식찌꺼기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미세한 찌꺼기라도 모두 수거하여 혼합쓰레기통에 버립니다.

동서로 삼익피아노

- 피아노, 교회용 전자올겐, 관현악기
 - 각종 수입악기 판매
 - 악기구입, 음악 교육 및 연주 지도 상담
- 동서 관풍로 다가교 입구
김태우(알풍소)
☎ 88-7717~8

영창피아노 중앙대리점

- 피아노 교회용 전자올겐
 - 24개월 장기 할부 판매
 - 교우님 조율시 20% 할인
- 우영순(프란치스코)
신 중앙상가 1층
☎ (0653)858-9109
호출기 : 012-676-5772

관원모집 수시접수 태권도 효문 체육관

- 차량운행
- 김현덕(다미아노)
손화수(마리아)
- 효문국교, 풍남중학교 정문 앞
☎ (0652)225-2234~5

요심이 (1091) 김병오



주교관 주방직원 구함

1. 지원자격 : 영세한 지 3년이상된 25세미만 미혼여성
2. 제출서류 : ①자필이력서(사진부착, 연락처명기) ②세례증명서 ③본당신부추천서 각1통
3. 서류접수마감 : 7.30(토)까지
4. 서류접수 : 전주교구청 사무처(☎ 85-0041)
5. 기타 : 면접일자는 개별 통보함.

방학특강 조찬화 미술학원

- 유치부 · 국교부 · 중고부
- 조찬화(글라리아)
- 삼천동 삼익APT 앞
☎ (0652)221-0870

제3차 영성강연회

- 주제 : 영성수련과 신약성서의 예수그리스도
- 강사 : 카알 플리쯔 예수회 신부
- 대상 : 일반신자, 수도자, 성직자
- 장소 : 서강대학교 이나시오관 소강당
- 일시 : 7월29일 09:00~18:30
7월30일 09:00~18:15
7월31일 09:00~16:30
- 참가비 : 35,000원(중식 및 다과포함)
<문화행사>
- 제1부 : 이니고와 함께
· 참가 : 일반신자, 수도자, 성직자
· 일시 : 7월31일 오후 1시30~3시
- 제2부 : 교전음악
· 참가 : 아퀴나스 합창단
· 일시 : 7월31일 3시15분~4시30분
· 장소 : 서강대학교 이나시오관 소강당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박진량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 ◎ 연중 제17주일
- ◎ 여름 신앙학교를 위한 2차헌금 있음.
- 1. 기린봉APT 2반 반회장 경질
조선자(안나)→이정희(루시아) 수고하셨습니다.
- 2. 초등부 여름 신앙학교: 교리: 7월23일~26일(토, 일: 후 1시, 월, 화-전 8시) 물놀이-27~28일(진안 덕안분교) 회비-5,000원. 신청-초등부 교리교사회
- 3. 중·고 여름 신앙학교: 교리: 7월24일~27일(후 3시~5시) 산간학교: 28일~29일(장소-진안 덕안분교) 회비-10,000원, 신청: 중·고 교리교사회
*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바랍니다.
- 4. 신앙학교 준비를 위한 찬조금 접수: 사무실
- 5. 26일(화)은 신앙학교 관계로 어머니미사가 없고 저녁미사가 있습니다.
- 6. 유아 세례: 30일 후 3시, 사무실에 신청
- 7. 모임: ① 꾸리아(오늘, 천사의 모후-장엄미사 후 자비의 모후-후 2시)
② 제대회(26일 저녁미사 후)
③ 빈첸시오회(28일 전 10시30분)
- 8. 금주 청소: 동진1,2반
차주 청소: 중노1,2반
- 지난주 봉헌금: 963,750원 □ 2차헌금: 1,260,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병부

- ◎ 연중 제17주일!
- 1. 초등부 어린이 여름 신앙학교
① 교리-7월23일(토)~7월24일(일) 오전 9시~오후 4시30분
② 물놀이-7월25일(월) 오전 9시~오후 4시30분
③ 3일 동안 점심 도시락은 각자 준비해 주세요.
- 2.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① 때-7월24일(일)~7월26일(화)
② 곳-고창 수련원
③ 대상-중·고등부 학생
※ 본당 청소년들에게 좀더 관심 깊게 보살펴 주고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 3. 반장회: 7월31일(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 4. 성전 보수헌금 신입하신 분(지난주): 김미자(로사) 50만원, 익명 30만원, 천사의 모후Pr 10만원, 백영순(엘리스벳) 5만원, 7월17일 현재 3백5세대 신입
- 지난주 봉헌금: 993,450원 □ 교무금: 841,000원

*** 복자** 주임신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정승현
보좌신부 86-3032 수녀원 86-3454 보좌신부 장상호
사목회장 황길평

- 1. 초등부 여름 신앙학교 및 중·고등부 여름캠프 찬조금
· 신청누계-39명 · 누계-2,435,000원, 감사합니다.
- 2. 청년회 여름캠프: 7월30~31일(1박2일)
· 회비-10,000원 · 대상-본당 내 청년들
· 장소-차후에 통보해드리겠습니다.
- 3. 병자 봉성체: 29일(금) 오후 2시
- 4. 유아 세례: 30일(토) 오후 7시
- 5. 성당 청소: 30일(토) 김순하신자의 모후Pr, 셋별Pr
- 6. 금주 전례: 해설-황만갑, 독서-유단수 부부
봉헌-김병화 가족
- 7. 차주 전례: 해설-유두식, 독서-유복규 부부
봉헌-유태열 가족
- 지난주 봉헌금: 573,910원 □ 교무금: 724,900원
- 감사헌금: 10,000원

*** 전동** 주임신부 81-0098 사무실 84-3222 주임신부 김복희
보좌신부 82-7245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이완재
F A 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이명행

- ◎ 연중 제17주일
- 1. 금주: ① 교부님 납부의 날
② 성마리아 꼬미시움(후 2시)
- 2. 초등부 여름 신앙학교: 25일~29일
캠프-28일~29일(본당) 물놀이-29일(혜곡천)
- 3. 남성 제48차 꾸르실료 일교: 많은 기도바랍니다.
7월28일~31일 김태수(야고버), 박창운(안젤로)
- 4. 차주: 차량 축복식(공식미사 후)
- 5. 감사합니다: 성당 애프터클럽-10만원(강 말가리다)
초대동 봉헌-100만원(익명)
- 지난주 봉헌금: 1,976,960원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복실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양주태

- 1. 모임: ① 성모회-다음주일 ② 울뜨레아-30일(토) 저녁
- 2. 초등부 여름 신앙학교: 23일(토)~27일(수)까지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 3. 첫영성체 준비 교리: 28일(목)~8월13일까지
- 4. 중·고등부 여름 신앙학교: 25일(월)~27일(수)까지, 회비-8천원. 장소-충남 비인면 춘장대 해수욕장
- 5. 여름 신앙학교를 위해 도움주시 분: 최상운, 장년회-각 10만, 요셉회, 김금자-각 3만원, 정광섭-2만원. 누계-677,000원
- 6. 성가 연습: 8월4일(목)부터
- 7. 자모회 소속도 방문: 8월3일(수)
- 8. 본당 발전을 위한 2차 헌금: 다음주일
- 9. 금주 청소: 천주의 모친Pr
- 10. 차주 청소: 구세주의 모친Pr
- 11. 금주 전례: 해설-우경숙, 독서-①한동욱 ②이석남
봉헌-이명수씨 부부
차주 전례: 해설-유만준, 독서-①양주태 ②주영례
봉헌-유준근씨 부부
- ※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상징
아멘(Amen): 이스라엘말 "정말" "꼭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라는 뜻이다. 유대인들이 제사 의식에 쓰던 말이 그대로 전해 오고 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모든 기도를 '아멘'이라는 말로 끝맺는다.
- 지난주 봉헌금: 350,010원 □ 교무금: 95,00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수녀원 87-0229 주임신부 이재후
사무실 83-8245 F A X 82-6686 사목회장 감상근

- ◎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다하여 사랑으로 서로 너그럽게 대하십시오"(에페소 6,2)
- 1. 초등부 여름 신앙학교: 25일~29일 오전 8시20분
- 2. 초등부 수련회: 저학년-31일, 고학년-31일~1일 나바위
- 3. 중·고 여름 신앙학교: 25일~27일 오후 3시~6시
- 4. 초등부 여름 신앙학교 1일 교장: 25일-임병규, 26일-박항규, 27일-최병남, 28일-주경순, 29일-오무균
- 5. 중·고 신앙학교 1일 교장: 25일-박항규, 26일-류덕진, 27일-함분권, 수고하셨습니다.
- 6. 꾸르실료 남성 48차 감습회: 윤영이(요한) 전생빈(라우렌시오)
- 7. 자신의 날: 27일 전 11시, 후 7시30분 미사, 어려운 이웃을 위해 모두 참여합시다.
- 8. M.E가족 나눔 모임: 26일 저녁 8시 사제관
- 9. 병자 봉성체: 28일 전 9시 사무실에 신청바람.
- 10. 고백성사 안내: 매일 후 7시 전후, 주일저녁-외부 신부님
- 11. 미사 안내자: 새벽 공식미사-박항규(요한) 양대규(라파엘) 임맹환(안토니오) 이정옥(루시아) 최장숙(가브리엘라)
- 12. 회의: 울뜨레아-공식미사 후
성령기도회-26일 저녁미사 후
자모회-27일 어머니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986,720원 □ 교무금: 1,220,000원